

# 한국대학 창업교육 현황 연구: 학부·대학원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중심

홍종득\*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석사과정

강현곤\*\*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교수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창업교육과정, 특히 대학 학부와 대학원 학위과정(2년이상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및 비학위과정(1개 학기용 개별 과목)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현재보다 나은 모델 개발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6년 4월 12일 교육부는 '대학원생 창업' 을 독려하는 등 산학협력으로 2020년까지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산학협력 5개년(2016~202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학내 모든 전공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심지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의 수요는 급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2013년 9월 교육부, 미래과학장조부, 중소기업청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창업선도대학사업' 이 진행중이다(2015년 28개, 2016년 34개 대학). 한편, 민간기업인 SK그룹(SK텔레콤)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전국 대학 25곳을 선정하여 'SK청년비상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을 2016년 3월 시작하여 현재 가동되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정부와 대학간 협력체제에서 진화하여 민-관-학 3주체 협력모델이 새롭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현재 전국 대학에 개설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들이 과연 양과 질면에서 적정한지, 그리고 구조가 잘 설계되어있고 단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와 논란이 있으므로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에 공헌하기를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분석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창업교육과정(커리큘럼) 개발에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서론

창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창업교육 커리큘럼들이 필요충분한 정도의 내용을 담고 체계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훌륭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창업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수요자, 교수자 등의 요구를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일련의 절차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다.

창업교육과정(커리큘럼)의 기준점은 개별 기관의 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학문적으로나 창업교육 실행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커리큘럼 프로그램의 기준은 개발과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특정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의 모형을 적

용시킬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김진화, 2000). 전국적으로 학부와 대학원의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은 비약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과정을 담당할 교수요원과 창업현장의 컨설턴트 양성을 위해 최적화된 교육과정(커리큘럼)개발이 필요하다. 각종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창업강좌 현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발전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조사

권혜진(2016)은 교수요원의 부족, 교육과정(커리큘럼)의 개발 및 교재 개발의 미흡으로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권래(2007)도 우리나라 창업교육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전문가, 교수, 사례도 매우 부족하고 그 시행에 있어서도 기존 경영학 교육을 벗어나지

\* jdhonglovesu@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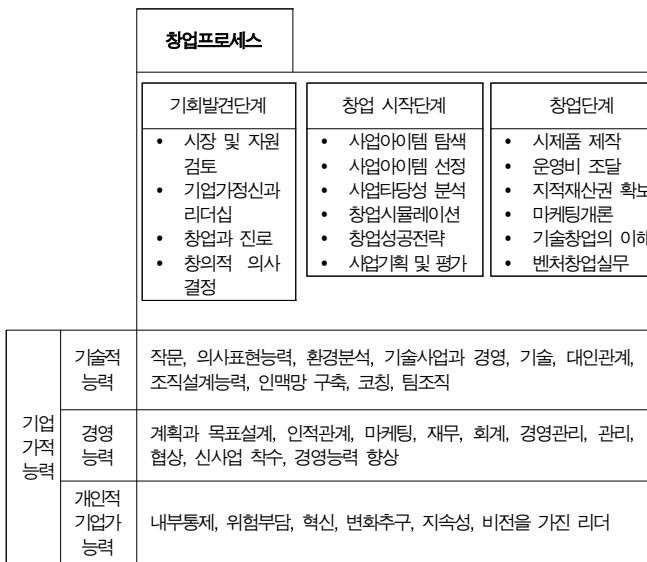
\*\* kahngkh@yonsei.ac.kr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혜정(2015)은 “대학생 창업아카데미사업 실태분석연구”에서 ‘창업아카데미’사업이 협약기간이 1년으로 짧아서 연속적인 창업교육이 어렵고, 지원금이 타 사업에 비해 적어서 단편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춘엽(1997)은 창업교육의 출발점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교과목의 설계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성식(2003)은 “창업전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논문에서 창업교육내용을 기술적 능력, 경영능력, 개인적 기업가 능력으로 구분하여 분야를 제시했다. 김용태(2009)은 “창업교육의 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창업교육 학자들의 관점을 비교하여 제시했다. 권혜진(2016)은 ‘창업선도대학’창업교육에 있어서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McMullan과 Long(1990)의 Growth Venture Position모형과 Shaper(1982)의 Entrepreneurial Event모형을 기반으로, Hisrich와 Peter의 기업가적 능력 형태를 영역으로 구분 후 대학 창업교육커리큘럼을 제안하기 위한 요인을 분석했다.



<그림 1> 연구모형

### 4. 연구대상 현황분석

#### (1) 대학 학부 학위과정

전국 22개 대학 23개 학과에서 학부과정에 “창업학과”를 도입 운영 중이다<표1>.

<표1> 대학 학부 창업학과 학위과정 개설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감률 (%)
	빈도 (개)	빈도 (개)	증감률 (%)	빈도 (개)	증감률 (%)	빈도 (개)	증감률 (%)			
개설 학교	12	13	8.3	20	53.8	22	10.0	22.4		
개설 학과	13	14	7.7	21	50.0	23	9.5	20.9		
입학 정원	772	871	12.8	1,317	51.2	1,514	13.0	25.2		
전담 교원	101	113	11.9	206	82.3	231	10.8	31.8		

이들 창업학과 입학정원은 1,514명, 전담교원은 231명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2개 이상 학과(부)가 합동한 창업 연계전공은 30개 학교에 38개 전공과정이 개설되어있다.

#### (2) 대학원 학위과정

전국적으로 16개 대학의 18개 대학원에서 27개 창업학관련 학위과정이 개설되어있다. 이중 석사과정 20개, 석사+박사과정 7개가 독립 전공으로 개설 운영 되고 있다<표2>.

<표2> 대학원 창업학과 학위과정 개설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증감률 (%)
	석사	석·박사	합계	석사	석·박사	합계	
국공립	4	0	4	5	0	5	25.0
사립	12	8	20	15	7	22	10.0
전체	16	8	24	20	7	27	12.5

#### (3) 대학 비학위과정 창업강좌 개설 현황

학위취득이 목적이 아닌 일반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서 ‘창업강좌’를 개설한 대학은 301개 학교이다<표3>.

<표3> 비학위 창업강좌 개설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감률 (%)
	빈도 (개)	빈도 (개)	전년 대비 증감률 (%)	빈도 (개)	전년 대비 증감률 (%)	빈도 (개)	전년 대비 증감률 (%)		
대학교	93	94	1.1	181	92.6	189	4.4	26.7	
전문대학	40	41	2.5	101	146.3	112	10.9	40.9	
전체	133	135	1.5	282	108.9	301	6.7	31.3	

▶ 대학 비학위과정 창업강좌수

창업강좌수는 3,534개로 이는 2014년 보다 38.0% 증가한 것이다.

<표4> 비학위과정 창업강좌수

구분	2012년		2013년		전년 대비 증감율 (%)	2014년		전년대비 증감율 (%)	2015년		전년대비 증감율 (%)	연평균 증감율 (%)
	합계 (개)	평균 (개)	합계 (개)	평균 (개)		합계 (개)	평균 (개)		합계 (개)	평균 (개)		
대학교	628	6.8	713	7.6	13.5	1,864	10.3	161.4	2,515	13.3	34.9	58.8
전문대학	337	8.4	338	8.2	0.3	697	6.9	106.2	1,019	9.1	46.2	44.6
전체	965	7.3	1,051	7.8	8.9	2,561	9.1	143.7	3,534	11.7	38.0	54.1

(4)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대학원 현황

1차 2004년에 지정됐던 경남과기대, 예원예술대, 중앙대, 한밭대, 호서대는 정부지원없이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중이다. 2차로 2014년에 새로이 지정된 국민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는 현재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으며 국책 대학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만 제시한다.

1) 국민대 글로벌창업대학원:

진로에 따라 3종 트랙 운영(글로벌창업보육투자, 창업교육, 벤처링) 된다. 트랙별 필수과목: 2개 과목(적다), 트랙별 인턴십 별도 구성 보유중(유일). 선택과목 선택 폭이 넓고 종류가 많다. 19개 선택 과목

2)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2종의 트랙 운영(창업학, 창업컨설팅) 공통 16개 과목, 창업학전공 필수 13개 과목, 창업컨설팅 전공 필수 16과목 운영중 다만 창업학전공과 창업컨설팅 전공별 필수 과목의 구성 일부가 비논리적이다. 예를 들어, ‘기업가정신’은 창업학전공에,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창업컨설팅전공에 편제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 타당성이 없음. ‘SKKU Entrepreneurship Capstone 1’은 창업학전공과 창업컨설팅 전공에 각각 편성되어있다. 이들은 공통과목에 편성되어야 한다. 한편, SKKU Entrepreneurship Capstone 2는 창업컨설팅 전공에 편성되었으나 이 역시 부적절하다.

3)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진로별 트랙 3종(창업경영, 창업컨설팅, 글로벌프랜차이즈) 운영 중 대학원 보유의 창업지식기반을 활용, 창업경영 전략 및 지원정책을 통한 다양한 창업아이디어 실현, 창업정신 고취와 창업의 장애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등을 통한 성공

창업인 배출. 유통 및 프랜차이즈창업에 강점 있다.

4) 연세대 정경창업대학원

창업컨설팅트 양성만을 목적으로 한다. 전임교원수가 가장 많다. 전공필수 비중이 가장 높다. 선택과목 비중은 대단히 낮다. 이는 단일 전공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학원 수준의 집중적 학습을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5) 호서대 글로벌창업대학원 벤처대학원

호서대는 가장 오래된 창업관련 석사과정을 운영 중이며 가장 많은 수의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들의 출신교이다. 개설 과목 수가 창업대학원 중 가장 많다. 국내 최초 1999년 8월 창업관련 전공 벤처경영학과를 도입했다.

5. 연구결과

학부수준의 비학위 창업강좌(1개 학기용 개별과목)는 산만하고 중복요소들이 많다.

대학별로 학위과정은 비교적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대학원 학위과정이 좀 더 전문적이다. 그러나 학교별로 실제 수강생과 졸업생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통해 인터뷰한 학생들과 졸업생의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결론적으로 각 대학이 1) 현재 재학생 2) 졸업생 3) 스스로 창업했고 현재도 사업을 영위중인 ‘창업자로서의 최고 경영자(founding CEO)’들의 의견 4)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반영하여 교과과정(커리큘럼) 설계 및 변경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상당수 재학생 및 졸업생들, 그리고 현장의 창업CEO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좀 더 유의하고 유용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려 한다.

참고문헌

창업진흥원, 2015, “대학 창업 인프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권혜진, 2016, “우리나라 대학의 창업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대학생 창업교육 콘텐츠 개발: 창업선도대학 사례분석 중심”, 석사학위논문, 한밭대  
 강혜정, 2015,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사업의 실태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이윤석, 2014, “창업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서울경제  
 박동, 박천수, 이종선, 2014, “대학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목영두, 최명길, 2012, “대학의 창업교육 체계화를 위한 창업학 교육과정 개발모형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김용태, 2009, “창업교육의 효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창업대학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